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1. 실만한물가 교회 부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4. 새벽 예배는 화, 수, 금요일에 드려집니다(레위기 강해).

5.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6. 요한복음 20 장 31 절 (2024 년 4 월 성경 암송 구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7.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부활 후 세번째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19 장 (통 44)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25. 시편 47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79 장 / 찬 478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429 장 (통 489)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Ephesians) 1:3-5(p. 310)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God's election and predestination

*찬 송 Hymn 445 장 (통 502)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말씀 노트 ||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깨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속량 곧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왕하 17:36)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 목회와 삶 ||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48). '온전하심'이라는 헬라어 명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성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에 가까워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증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행 7:58).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 9:5)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후 하나님의 유일하신 경륜(經綸: God's unique plan of salvation)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고전 11:1a).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고전 11:1b; 빌 3:17).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성도들이 모델(model)로 삼아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들의 자녀이고 가족 구성원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